

일부 동물 이동량 70% 더 늘며 '고단한' 생존

인간 활동 탓에 동물의 이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있으며, 일부 종에서는 이동량이 70%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벌목이나 도시화 등으로 동물이 서식지를 뺏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았지만, 사냥이나 레저 등과 같은 단편적 활동을 포함해 인간이 동물의 이동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 황금자칼(위), 호주 날다람쥐. 사진=shutterstock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대학 야생 생태학자 팀 도허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동물의 이동에 관한 208편의 논문 자료를 뽑아 분석한 결과를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지난 39년간 발표된 것들로, 작은 나비에서 대형 백상아리에 이르기까지 6개 대륙의 동물 총 167종을 다루고 있다. 황금자칼과 여우원숭이를 비롯한 포유류가 7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조류(37종), 파충류(17종), 어류(13종), 절지동물(12종), 양서류(11종) 등의 순으로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총 719건의 사례 중 3분의 2 이상(67%)에서 이동이 20% 이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동물의 이동이 50% 이상 영향을 받은 사례는 37%에 달했다. 이는 인간 활동에 따른 소란으로 동물 이동의 변화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냥과 레저, 군사 활동 등과 같은 단편적 소란이 동물의 이동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35%에 달해 벌목이나 경작 등에 따른 서식지 조정이 야기하는 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동물의 이동량 증가는 평균 70%, 감소는 37%로 집계됐다.

연구팀이 제시한 사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점박이 사막 도마뱀은 덜 소란한 지역에 사는 개체보다 더 먼 지역을 더 자주 이동하고 있으며, 벌목이 진행된 숲에 사는 마다가스카르의 여우원숭이는 온전한 숲에 사는 개체보다 행동권이 56%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아시아 마을 주변에 서식하는 황금자칼은 행동권이 다른 개체에 비해 68%나 작으며, 도로나 주거지 주변의 호주 날다람쥐 역시 숲에 사는 개체보다 행동권이 작은 것으로 분석돼 있다.

연구팀은 "동물은 인간을 피해 달아나거나, 먹이나 짝을 찾아 더 멀리 이동하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소란에 적응하는 행동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동물은 인간 주변에서 먹이를 찾거나 조정된 서식지 안의 물리적 장벽에 막혀 이동량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인간활동에 따른) 동물 이동의 변화가 동물의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생식력을 줄이며, 유전적 고립과 지역적 멸종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동물의 이동이 꽃가루받이나 종자 분산, 토양 비옥화 등과 같은 생태적 과정과도 중요하게 연관돼 있어 동물 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달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최지호 (NPI: 1225149859) 노인의학 클리닉

전화진료 전화처방

바쁜 스케줄때문에 의사를 보기 힘들시다면 전화주세요.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있으시면
의료상담과 처방전을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준비물: 본인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약국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최지호 M.D.

가정의학 / 노인의학 전문의

199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 고대 구로 병원 인턴
2000 경북 상주 공보의 원료
2006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공의 수료
2013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임상펠로우 수료

• 일반 가정의학

상,하 기도 감염, 요로감염, 오줌소태, 방광염, 질염, 처방전 관리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부비동염, 알레르기 비염, 피부발진 천식

• 일반 노인의학

만성 관절염, 급성/만성 요통, 우울증, 불안조조 장애, 어지럼증

• 처방약 및 각종 치료제

- 치매 "약화" 예방/기억력 강화제
- 각종 처방전 파스 (Lidoderm, Flector, Voltaren Gel)
- 가려움증, 피부질환, 습진 치료제
- 손톱/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 각종 종합 비타민
- 최고급 오메가-3
- 불소 치약
- ARED-2 눈 비타민

전화/문자/사진

213-340-4799

OPEN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Fax. (703) 662-6165

www.immediatehousecalls.com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